

울산 못 넘은 제주SK… 아쉬운 무승부

전반 30분 야고 퇴장에도 골 사냥 실패 0-0
승점 39 리그 4위 유지… 7위와 승점 차 4점

제주SK FC가 수적 우위에도 울산 HD를 상대로 끝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제주SK는 지난 5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SK는 전반 30분 상대 공격수 야고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갔지만 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제주SK는 강한 바람을 등지는 이점을 살려 세트피스 찬스에서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제주SK는 전반 18분 공격에 가담한 중앙 수비수 김재우가 날카로운 오른발 발리슈팅을 연결했지만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홈팬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제주SK는 치나리와 아이아스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울산을 계속 압박했다. 울산은 전반 30분 퇴장 악재까지 맞이했다. 야고가 박수빈에게 거친 파울을 범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후반전은 수적 우위를 점한 제주SK가 계속 울산을 몰아세웠고 수차례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끝내

골은 터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제주SK는 10승9무8패, 승점 39로 여전히 리그 4위를 지켰고 파이널 라운드 A그룹 진출권 마지노선 7위와의 승점 차는 4점이다.

제주SK는 오는 9일 광주와 28라운드부터 파이널라운드 이전까지 두 달 동안 기나긴 원정경기에 나



제주SK 토비아가스를 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선다.

한편 관중 동원 요소가 많은 빅매치에 경기 후 진행된 이루진 스페셜 공연의 티켓 파워가 맞물리면서 이날 경기는 1만2037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이는 올 시즌 제주SK의 K리그1 최다 관중 기록으로 2018년 프로축구연맹의 유료 관중 집계 시작 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의 K리그 최다 관중 기록은 지난해 12월 7일 수원 삼성과의 승강플레이오프 홈 2차전(1만8912명)이다.

위영석기자 yswil968@ihalla.com

침묵 깬 손흥민, ‘1골 1도움’ 활약

6일 MLS 솔트레이크시티
공식전 8경기만 공격포인트
울시즌 7골 18도움 기록
LAFC는 리그 6경기 무승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공식전 8경기만에 골 침묵을 깬다. 팀은 무승부를 끊어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026 MLS 정규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골 맛을 본 것은 MLS 5경기 및 공식전 8경기 만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리그 19라운드(1-1 무승부)에서 리그 4호 골을 터트린 이후 MLS와 리그스컵을 합해 공식전 7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이날 MLS 5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북 중 미 카리브 축구 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의 2골을 합해 올 시즌 공식전 득점을 7골(18도움)로 늘렸다.

아울러 리그 11호 도움을 기록한



6일 LAFC 손흥민(오른쪽)이 드니 부앙가와 골 세리머니 하는 모습.

연합뉴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12도움)에 이어 도움 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특히 손흥민은 MLS 진출 후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치른 4경기(6골 3도움)에서 모두 골 맛을 보며 천적 관계를 군했다.

지난해 두 번의 대결에서는 헤트트릭,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각각 4-1 완승을 이끌었고, 지난 7월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1골 1도움으로 3-1 승리를 안긴 데 이어 이날 1골

1도움을 추가했다.

손흥민의 활약에도 LAFC는 이날 솔트레이크와 2-2로 비겼다.

리그 6경기 무승(4무 2패)에 빠진 LAFC는 승점 37(10승 7무 7패)로 서부 콘퍼런스 3위를 위태롭게 유지했다.

솔트레이크는 승점 29(8승 5무 9패)를 기록했다.

이날 손흥민은 최전방에 배치돼 드니 부앙가, 타일러 보이드와 LAFC의 공격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AG 앞둔 안세영, 2주 연속 금빛 스매시

중국 마스터스 女단식 45분만에 2-0 완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압도적인 기량을 뽑내며 2주 연속 정상에 올라 완벽한 ‘금빛 예열’을 마쳤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6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중국 마스터스(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9위 미야자키 도모카(일본)를 45분 만에 2-0(21-17, 21-6)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이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에게 패한 뒤 33연승을 내달리며 경이로운 승률 98% 고지에 올라섰다.

올 시즌 단체전을 포함해 이미 10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안세영은 현재까지 49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32강전부터 결승까지 역시 단 한 게임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모든 경기를 40분 남짓으로 마무리하는 체력 안배 속에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안세영은 첫 게임 초반부터



중국 마스터스에 출전한 안세영. 연합뉴스

리드를 잡았고, 9-9 동점 이후 단 한 번의 추격도 허용하지 않은 채 여유 있게 첫 게임을 쟁겼다.

2게임은 한결 수월했다. 시작부터 8점을 내리 쓸어 담으며 미야자키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 상대에게 단 6점만 내준 채 금세 승부를 매조졌다. 연합뉴스

태권도 배준서, GP 남자 58kg급 정상

부활의 신호탄을 쏜 배준서(25·강화군청)가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에서 세계 챔피언을 쓰러뜨린 배경엔 경쟁자이자 동료인 박대준(경희대)의 조연이 있었다.

배준서는 지난 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kg급 16강에서 아불파즐 잔디(이란)를 2-1로, 준결승에서 서은수(한국체대)를 2-0으로 꺾은 뒤 결승에서 박대준에게 2-1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우시 세계선수권대

회 우승 이후 이 체급 최강자로 떠오른 잔디를 상대로 거둔 승리가 값졌다.

배준서는 경기 후 “(잔디가) 매우 강한 상대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다”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잔디의 발을 끊어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예상보다 할 만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2라운드 때 확실히 잔디가 지쳐가는 게 보였다”며 “잔디의 체력을 끝까지 잡아내며 몰아붙인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잔디는 한국 선수들에게 천적이

로 군림해 왔다.

지난 5월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양희찬(한국가스공사)을 꺾은 데 이어 8월 아시아 프레지던트컵 준결승과 결승에서 박대준과 안향식을 차례로 물리치는 등 한국 선수들에게 유독 강했다.

잔디와 처음 맞붙은 배준서는 박대준에게서 해법을 얻었다. 그는 “4일에도 (박)대준이 방에 갔더니 잔디에 대한 이런저런 ‘꿀팁’을 줘서 도움이 됐다”며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선후배다. 잔디가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05 TV 유치원(재)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재)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왕의 딸(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사정남 귀는 당나라 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5 기분 좋은 날 11:15 건강의 재구성 선풍(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종ын아침 9:55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1:00 보석아네 건강 수다	8:20 한글공사 아이아 9:40 부모의 첫 성교육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3:25 지식채널e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꼬마미방사 주니토니 17:10 페퍼 피크 18:20 고향민국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4:40 굿모닝(재) 15:00 현생리뷰(재) 15:30 1989, 두 번째 봄(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유쾌비 언덕에 왜 왔니?(재) 16:00 TV 유치원 16:30 세상의 모든 다큐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뽀뽀뽀 좋아좋아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베베핀 17:30 가족관계증명서(재)	12:00 SBS 12 뉴스 12:45 안년 자두야 6 13:00 오늘부터, 인생 2막(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토크플러스 17:00 JIBS 저녁뉴스 17:10 시사이슈 결 스페셜(재)	9:00 KCTV 9시 뉴스 9:30 수중음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00 인터넷 제주공감 13:30 KCTV 시청자 세상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인터넷 전국발굴 17:10 수중음 18:00 삼촌 댁심사서 19:00 KCTV 종합뉴스 20:00 슈퍼푸드의 힘 A
제주 CBS FM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왕의 딸 20:30 다류멘터리 3일 21:30 탐자소 23:00 아이 러브 스포츠 23:25 스모킹 건(재)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50 심야리듬회 6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리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내 남은 연애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찍이 일어나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가요 17:00 시사메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7일		김홍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함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흥.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아라.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이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자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은 부적절하다.
	37년 여기저기서 듣는 이가 많으니 일은 성사되고 질병은 희박. 49년 명예 또는 갑부 쓸 일이 생기거나 리더자로 인정받는다. 61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길. 85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뤄진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업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성이 나타난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38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불화 우려. 조용한 추진이 필요.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44년 무리수가 오니 화쟁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삼각관계 심각.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속 태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일은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쁘니 호사다마이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5년 주면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윗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2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은 많아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 58년 읍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운 일을 추구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매어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주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니 자랑은 자제할 것.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 논쟁한다.